

학교 공부를 어려워하는 우리 아이... 혹시?

지적 장애가 의심될 경우 대처법 3가지

1/9

지적장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?

- ✓ 지적 기능(추론, 문제해결, 계획, 추상적 사고, 판단, 학습, 경험학습 등)이 떨어지고
- ✓ 적응 능력의 부족하여
- ✓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합니다.

지적장애의 특징은 평범한 게으름이나 산만함과 헛갈리기 쉽죠.

구체적인 사례로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?

2/9

수지의 이야기

초등학교 5학년이 된 수지는 말이 느려 언어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친구입니다.

말이 늦어서인지 친구들과의 말싸움에도 계속 지고 화내기 일쑤입니다. 또한 한글이며 산수며 배우는 걸 어려워하고 피해버립니다.

학교 상담 주간에 선생님께서 수지 엄마에게 말합니다.

'어머니, 제 생각에는 수지가 학교 수업에 흥미가 많이 없어 보입니다. 수업 시간에 집중력도 떨어지고,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. 친구들이 도와주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. 또 친구들과 싸울 때 더 과격해질 때도 있어요.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떨까요?'

3/9

지적장애를 겪는 아이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

- ✓ 친구 관계 문제
- ✓ 감정조절의 문제
- ✓ 학습 문제
- ✓ 집중력 문제

지적장애의 증상은 생활 전반의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기에,

부모님께서 아이의 어려움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

4/9

지적 장애가 의심될 경우 부모님의 대처법

1. 일상생활 적응 돕기

학습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응을 돕습니다.

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**기본적인 활동을 스스로 하게끔** 시키고 어려운 점을 발견해 훈련시킵니다.

기본적인 활동이라면 스스로 씻고 식사를 차리기, 일상적인 대화 나누기, 친구와 시간 보내기, 혼자서 먼 거리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다녀오기, 물건 결제하기 등을 의미합니다.

5/9

지적 장애가 의심될 경우 부모님의 대처법

2. 어려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격려하기

아이가 학습이나 새로운 일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경우 과거에서부터 반복된 실패와 좌절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잘 못 하는 것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 **실력이라고 응원해주고 아이의 관심사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.**

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자동차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복잡한 단어,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식입니다.

6/9

지적 장애가 의심될 경우 부모님의 대처법

3.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

병원에서 **지능검사 등을 시행하여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**

또한 조기 치료를 통해 언어 표현력과 문제해결능력, 대처능력, 자조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,

조기 평가 결과에 따라 집중력 향상을 위한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7/9

아이에게 장애가 없는 경우라면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지적 장애인 친구를 올바르게 대하는 법을 교육해주세요.

1. 지적장애인은 '나보다 못한 사람', 혹은 '이상한 사람'이 아닙니다. 다른 친구들과 **동등하게 존중**하도록 합니다.
2. 지적장애인의 발음이 불명확하더라도 **무시하지 않고 경청**하도록 합니다.
3.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발견하면 **친절하게 도와주도록** 합니다.
4. 실수하고 문제해결이 서툰 점, 소통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점을 **이해해주도록** 합니다.
5. 무엇보다 지적장애인과도 **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**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죠?

8/9

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아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주세요.

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에는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.

*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했습니다.

9/9